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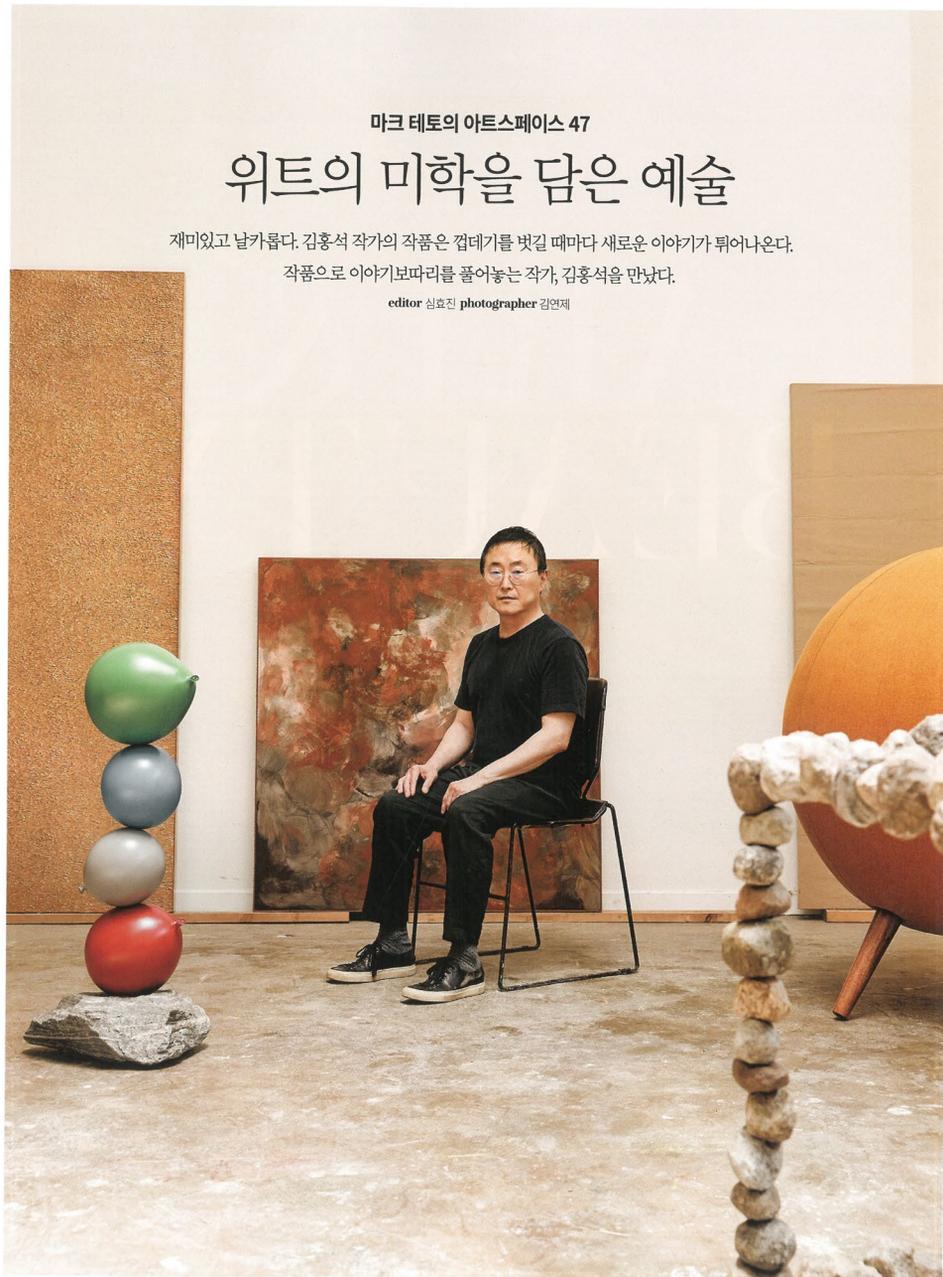
위트의 미학을 담은 예술

July 2023 | 심효진 에디터

Page 1 of 8

ARTSPACE

110



111



김흥석(196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후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에서 유학했다. 일찍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구조와 사회의 부조리를 작품을 통해 고발해 온 작가는 조각부터 회화, 영상,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작업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작가의 작품은 친근하고 귀엽고 재기발랄한 형태를 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술의 주변에서 머무는 물질과 사람에 대한 냉혹한 뒷이야기가 담겨 있다. 2003년과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연속 출품했고,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그의 작품은 부산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미국 휴스턴 미술관, 캐나다 국립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다.

MARK TETTO



마크 테토는 JTBC <비정상회담>의 훈남 패널로 이름을 알렸다. 한국 생활 13년 차, 북촌의 한옥 마을에 거주하며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매일 누리고 있다. 경복궁 영예 수문장을 역임하고, 한국 공예품과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그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중 한 명. 매달 <리빙센스>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만나 그들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1 작업실 옥상에 설치된 김흥석 작가의 조형물 2 마네링에 인형의 털을 씌워 진짜 사람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



2

작업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홍석 작가와 마크 테도.



113



1



LIVING SENSE
2023/07

1 좋아하는 단어와 문장을 여러 번 겹쳐 쓰고 지우개로 지워 그 흔적으로 존재하는 작품을 시연 중인 김홍석 작가. 2 완성했다고 생각했을 때 일그러뜨리는 조각품. 3 김홍석 작가의 위트 있는 작품들에 매료되었다는 마크 테토.

“어린이가 봐도 재미있는 형태가 나와야 한다는 게 제 신조예요. 개념이나 메시지는 비평가와 미술관에서 평가할 것이고, 저는 보통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위트 있게 직면하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김홍석 작가의 작품이 그렇다. 외형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선 그의 작품은 귀엽고 특이하며 눈길을 끈다. 방식도 제각각이다. 유명 작가의 작품을 비틀어 모방하거나, 사랑스러운 형태와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또 놀이동산 퍼레이드에서 만날 것만 같은 인형 탈이 등장하며, 볼펜으로 마구 낙서를 한 것 같은 회화까지 선보인다. 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기엔 스타일의 스펙트럼이 꽤 넓은 편이다. 김홍석 작가는 이런 여러 스타일의 작업을 통해 오랫동안 불편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을 표현했다. 그 안에는 서구 우월주의에 대한 반감부터 미술계에 만연한 비윤리적인 행태, 자본주의사회의 부조리함 등이 담겨 있다. 그렇게 쓰레기 붓지는 귀여운 강아지와 곰이 되고, 일용직 노동자의 손에서 작품이 탄생하며, 인형 탈을 쓴 마네킹은 사람으로 인식된다. 하나의 걸작이 만들어지고 스타 작가가 탄생하기까지 그 변두리에서 소외되는 모든 존재들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김홍석 작가의 작품 세계. 일단 한 번 보면 재미있다. 자세히 보면 더 흥미롭다. 우리는 그가 작품을 통해 던지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3





소년의 해맑음을 지닌 김홍석 작가가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다.



M 조각부터 회화, 또 설치미술작품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선보이시는 데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원래 미술을 전공할 생각이 없었어요.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별 뜻이 없었고요. 가장 합격 확률이 높은 미대를 찾아서 온 좋게 입학한 거고요. 조소를 전공했지만 학교에서는 '장갑손'으로 유명했죠. 장갑을 끼도 저보다는 잘 만든다고요(웃음). 그래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했고, 미술계 주변인으로서 고민도 많았죠. 오랫동안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술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저만의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스타일의 작업을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M 독일 유학 시절에도 조각이 전공이었나요? 그때는 개념미술을 전공했어요. 독일에서는 한국에서의 제 전공이 인정되지 않아서 학부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5년 공부하고 3년 동안 활동했어요. 당시 IMF 외환위기 때문에 독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기 어려워서 귀국했죠.

M 독일에서는 주로 어떤 작업을 하셨나요? 하나 예를 들자면, 당시만 해도 ATM 기기가 자본주의의 신문화물이었거든요. 독일에서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노인들이 많았죠. 저는 그 상징적인 기계를 작품에 끌어들이고 싶었어요. 미술관의 아주 높은 곳에 ATM을 설치하고, 비행기 트랩을 통해 걸어 올라가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을 구상했어요. 은행과 공항에 얘기 해서 기기들을 빌렸는데, 비행기 트랩을 미술관까지 가져오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무산되긴 했지만요.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M 독일에서의 시간이 작가님의 철학을 확립할 수 있었던 시기였군요? 제 주요 작품들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이 바탕을 이루죠. 많이 배웠지만 또 그만큼 고민도 컸던 시기였어요. 서양미술을 미워하게 됐던 까요(웃음) 그 역사와 예술은 무척이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서구 우월주의, 인종차별과 싸워야 했어요. 이미 세계에는 서양의 문명이 퍼져 있고, 동양은 그걸 따라가거나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교수님들은 저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라고 했지만, 색동이나 기와는 조선시대의 정체성이지만 현대 한국의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서구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동양적인 것을 강요하는 행태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던 중 호미 바바라는 철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그가 말하는 '혼종'이라는 개념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차피 서구 문명의 지배 속에 태어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혼종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게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M 그런 고민 속에서 제프 쿤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강아지 형태의 조각상을 보여준 건가요? 그렇죠. 저는 서양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리액트'하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엑트'를 해봤자, 서양 예술 신에서 그저 좋은 '아시아' 작가로밖에 인정받지 못해요. 저는 제 것을 보여줄 권한이 없었고,

시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주목받았던 서양의 예술 작품을 일그러뜨리는 작업들을 시도했어요. 로버트 인디애나의 '더브'를 일그러뜨리는 게 그 시작이었고, 제프 쿤스의 '강아지'를 변형해 쓰레기 봉투로 만든 '개같은 형태'라는 작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M 이면의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진진해요. 인형의 탈을 쓴 작품들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산티아고 시에라 작가에게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예술과 노동력의 불편한 상관관계를 드러내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표현합니다. 그는 하위계층의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작품에 실제로 끌어들여 예술, 노동, 자본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해요. 저는 그 방법 역시 거칠고 폭력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사람 대신 인형을 사용해서 그 개념을 취했습니다. 사람이 인형의 탈을 쓴 것 같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안에 사람이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M 메시지는 무겁지만 작품은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지금 작가들이 비판하고 있는 세상은 그 예술로 인해서 바뀔 게 없어요. 그 작품들이 미술관에 모셔져 있으니 바뀔 리가 있나요? 게다가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미술관에 갈 시간이 어디 있나요. 주말엔 쉬거나 놀러가야 하니 미술관에 갈 이유가 없죠. 평일 오전 9시에 문을 열어서 6시에 닫는 걸요. 결국 세상은 바뀌지 않는데 미술관 안에서만 사회적 이슈를 다룬, 어떻게 느껴지는 작품들이 전시되는 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메시지는 담되 관객이 재미있어 할 형태로 표현하는 태도를 취하게 됐고요. 쓰레기 봉지로 만들었지만, 아이들이 보기에도 친근한 귀여운 강아지 형태로 만든 건 그 때문이에요.

M 오늘 작업실에서 직접 작품을 보고 설명을 들으니, 작가님의 워트에 감탄하게 되네요. 대표작인 풍선 작품도 스토리가 궁금해요. 풍선은 우연히 작업으로 연결된 케이스인데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식구 몇몇에게 새해를 맞이해 소망을 생각하며 풍선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 안에 담긴 숨은 바로 그분들의 것이니, 일회성 풍선이 그 과정을 통해 특별해진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작품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 모양대로 캐스트를 떠서 브론즈로 완성했어요. 풍선을 보면서 그 사람의 숨결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해지죠.

M 모든 작품에 얽힌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네요. 마지막으로 요즘엔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작업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성'이란 게 뭘까 얼마전부터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중이에요. 예술가의 창작은 언제 완성되는지, 진정한 완성은 맞는 것인지. 아마도 그 해답에 영원히 도달할 수는 없겠죠.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를 완성이라고 주장하거나, 일부러 못 그린 것이라거나 조각을 작업하고 있어요. **■**